KTRA
http://www.ktra.or.kr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한국관광연구학회 2008 춘계 학술발표대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가치 추정

허중욱*

Ⅰ. 서론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정책은 1960년대에 국민의 품격보다는 주한미군 주둔에 기초를 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외화벌이(dollar earning) 수단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정부에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이라는 문화정책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헌법 조문(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관광에 대한 개념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 관광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문화 아이콘으로 불리는 문화관광축제 역시 경제적 가치, 문화, 관광 등이 종합된 백화점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문화관광축제가 경제적 가치와 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축제의 기원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하여 거대 성당(사원)으로 제도화된 이래 개방화된 공간에서 축제라는 놀이문화로 존재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양태는 관광자를 과거의 종교적 순례자에 비견되는 현대판 순례자(MacCannell, 1973)로 기술하고 있고, 현대인은 문화관광의 각종 상품이 충만한 변형된 욕망의 백화점인 문화관광축제로서 '소비의 대성당(cathedrals of consumption: Rizer, 1999)'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적 소비행동에 대하여 현대인이 문화적 고유성에서 벗어난 가짜를 보고 울고 웃는 얼간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Boorstin, 1964). 그러나 문화관광자의 실제적 양태는 목적지의 고유성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거주지에서 향유했던 식생활과 거주환경의 편리함을 요구하는 쾌적성과 친숙성을 요구하는 다면적 관광객(versatile tourists: Ooi, 2002)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고유한 것보다는 상업화된 문화관광상품을 즐기면서 문화관광을 게임 정도로 인식하는 탈관광객(post-tourists: Urry, 2002)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관광의 상품화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서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이전이 이미지 생산과정(simulation)과 생산된 이미지 결과물(simulacra)로 설명되기도 한다(Baudrillard, 2002).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화관광현상의 특성은 자본주의의 생산물이 현대인의 다면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상호 만족스러운 편익의 교환이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경제적, 문화적 관점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서도 문화관광의 주요 소비대상인 이미지 결과물(모사품)이 가장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는 문

* : 강원대학교 교수. hcuk@kangwon.ac.kr

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문화관광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축제는 일시성, 가시성면에서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투입에 따른 생산의 결과 또는 생산의 지속성면에서 매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부 및 소단위 지역에서 문화관광축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이미지 생산물로서 문화관광객의 다면적 욕구를 수용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문화관광축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여러 연구에서는(한범수·김사헌, 1997; 이희찬, 2003; 한상현, 2007; Ruijgrok, 2006)의 연구에서는 방문자와 지역주민을 통합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논의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관광축제의 가치가 과대추정될 위험(허중욱, 2007)을 가지고 있으나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통하여 실제적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관리되는 대상이 아닌 관계로 무응답으로 지불의사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가치추정은 조세에 따른 예산편성의 정의 측면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접근

1.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소비행동 또는 투자를 통하여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현시선호방법과 조건부 시장 및 재화, 용역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을 질문하여 가치를 도출하는 진술선호방법으로 구분된다(Freeman, 2003). 이들 방법을 경제이론에 기반을 두고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시장적 방법(market methods), 현시선호방법(revealed preference methods: RPM), 진술선호방법(stated preference methods: SPM), 모의시장분석법(simulated market approach) 등이 있고 현시선호방법과 진술선호방법의 혼합모형도 사용되고 있다(권오상, 2007). 이중 대상재화나 용역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거래에 바탕을 둔 경제적 가치 추정이 곤란할 때는 현시선호방법(SPM)이나 진술선호방법(SPM)을 대안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진술선호방법(SPM)은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시나리오로 조건부 시장환경을 설정하여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응답자의 응답결과에 따라 대상 재화나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가상적 질문을 통하여 최대지불의사액(WTP)를 질문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므로 여러 가지 편의(bias)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편의를 회피하기 위

하여 미국해양기상청(NOAA)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NOA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CVM을 통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은 실제 시장을 시나리오 기술을 통하여 수량, 품질, 가격, 조건 등이 표명되는 가상적 시장(hypothetical market)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질문방식이 개방형인가? 또는 폐쇄형인가?에 따라 응답자가 쉽게 응답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상적 시장에서 기술된 특정 상품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만 하면 되는 폐쇄형 질문이 각종 편의를 회피하기가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질, 수량을 보고 가격 대비 수용가능하면 '구매' 또는 '포기'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CVM 시나리오상에서 지불수단 또한 과세부담을 자극하는가)? 또는 중립적인가? 충동적인가?에 따라 지불의사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대지불의사액 지불수단으로 세금, 발전기금 또는 입장료, 복권 등에 따라 응답자는 상이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립적 지불수단을 택하는 것이 WTP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VM 설계에서는 폐쇄형 질문인 경우 제시금액을 적정수준에서 결정하여 응답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간 또는 표집대상의 규모에 따라 결정해야 하나 응답자의 생각과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부정적 응답이 발생할 수 있어 설계에서 유의해야만 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CVM을 이용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의 경향은 공원 및 휴양림, 동식물 등 자연자원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Lee & Han, 2002; Berrens, Bergland & Adams, 1993; Richer, Christensen, 1999). 이것은 진술선호방법(SPM)이 경제적 이론에 기초한데다가 분석대상 재화나 용역이 특정 부분만 독립시켜 분석하는 특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추정이 환경경제 분야에서 더욱 왕성하게 연구가 진행된 것도 이와 같은 연구경향을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문화관광자원에 한정시켜 볼 때 근래에 들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 CVM을 이용한 문화관광연구 결과

연구자	생산연도	대상재화	지불유도방법	지불수단
이희찬	2003	축제(광주비엔날레)	단일 양분선택형	추가 입장료
김영 등 4인	2004	축제(안동민속축제)	지불카드	보전용 기부금
김학용 등 2인	2006	문화유산(수원 화성)	단일 양분선택형	보전용 기금
한상현	2007	문화유산(안동화회마을)	이중 양분선택형	보전용 입장료
허중욱	2007	축제(강릉단오제)	이중 개방형	보전용 기금
Ruijgrok	2006	문화유산(역사 유적지)	개방형	보전용 지불
Dutta et al.	2007	문화유산(Prinsep Ghat)	입찰형	보전용 지불
Kim et al.	2007	문화유산(창덕궁)	단일 양분선택형	보전용 입장료

CVM을 이용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축제와 문화유산으로 대별되고 있다. 지불유도방법은 단일 또는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단일 또는 이중 개방형 질문, 입찰형 질문, 지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지불수단은 입장료, 기금, 자유 지불 등의 방식이 채택되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추정되었다.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희찬(2003)은 광주비엔날레를 대상 재화로 하여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불액, 서비스, 전시작품의 난해도, 지역, 재방문, 직업, 학력, 방문자 유형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 점은 지역 방문자(광주)의 지불의사는 외래 방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다. 김영·이상영·신용광·김은자(2004)은 안동민속축제를 대상 재화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안동지역주민이 외부지역민에 비하여 높은 지불의사액을 보였다. 허중욱(2007)은 UNESCO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전·후의 WTP를 추정한 결과 기타 지역, 수도권, 강릉, 강원도 거주 방문자 순의 지불의사액이 기타 지역, 강릉, 강원도, 수도권 거주 방문자 순으로 지불의사액이 표명되었다.

CVM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로는 김학용·박호표(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수원화성보전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금액의 부의 효과와 소득의 정의 효과, 방문경험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현(2007)은 안동하회마을을 대상 재화로 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시금액, 여행비용, 대도시 거주, 연간가구소득, 직업, 교육수준, 가구 구성원 수, 재방문의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자가 지역주민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Ruijgrok(2006)는 네덜란드 남동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선사유적부터 역사시대 유적이 즐비한 Tieler와 Culembogerwaard지역을 방문하는 네덜란드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중 레크레이션가치와 유산가치를 추정하였다. 문화유산보전을 위하여 지불의사를 밝힌 방문자는 85.2%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Dutta, Benerjee & Husain(2007)은 인도에서 오래되었지만 역동적인 거대도시 Calcutta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Prinsep Ghat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유산 보전용 지불의사를 확인한 것이 큰 특징인데, 지불의사와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관계에서 교육수준, 가계소득, 직업 유형, 최근 3년간 여행비용, 최초 입찰 제시가격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Wong & Cho(2007)는 세계문화유산인 우리나라 창덕궁을 대상 재화로 내국인 방문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시금액, 현재 입장료 인지, 지불한 입장료 가치수준의 인지, 현재 입장료 수준에 대한 만족, 문화유산관광자원의 높은 수준의 부장품에 대한 신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때 CVM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문화관광자원은 현지 주민이 보다 높게 평가하는 현상도 표출되었지만, 방문자가 보다 높게 지불의사를 표명하는 양립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은 반영적 연구를 시도하여 지역주민의 신념하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시도한다.

Ⅲ. 연구조사 설계

1. 시나리오와 조사설계

본 연구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UNESCO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를 대상 재화로 하여 지역주민이 표명하는 WTP에 근거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강릉단오제는 유불선 및 무속의 전통제의가 혼합된 의례, 강릉관노가면극, 강릉단오굿, 민속놀이 등이 어우러진 전통축제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는 강릉단오제의 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13호인 강릉단오제는 2005년 11월 세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천년의 세월동안 지역의 독특한 전승신화와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는 상업화와 변형을 막고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강릉단오제기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인 기금은 단오무형문화재연구원 개설, 시설 건축,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됩니다. 이로써 강릉단오제의 원형을 유지하고 상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축제의 소유권이 기업에 매각되어 강릉단오제 원형이 변질되어 상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릉단오제는 더 이상 전통적 축제기능을 할 수 없고, 특정기업의 선전물로 전락하여 지역축제의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시장시나리오에 이어서 "귀하께서 강릉단오제의 소유권과 원형을 지키기 위하여 「강릉단오제기금」으로 매년 입장료 (X)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① 예, ② 아니오로 응답을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시금액은 500, 1000, 2000, 3000, 5000, 7000, 8000, 10000, 15000, 20000원 등 10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강릉단오제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강릉단오제 방문객의 규모는 2004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기준으로 유료입장객 608,778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유료 및 무료를 합한 실제 방문객은 1,730,000이나 경제적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방문객을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모집단 규모를 바탕으로 표본조사는 강릉단오제 행사기간 5일 중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2006. 5.31-6.2까지 3일간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강릉단오제 축제행사기간인 음력 5.5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선거로 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영동지역 외 지역에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표집단위는 개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족단위 방문객의 경우 가구별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릉단오제 및 난장의 관람 및 체험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이거나 WTP가 지나치게 편의를 보이는 설문지를 최종분석에서 제외한 결과, 유효한 표본크기는 514부이다. 이중 지역주민은 326명, 그 외 지역 방문자가 1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방식은 직접 면접조사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강릉단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모형

폐쇄형 질문으로 제시금액 10개의 가격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응답자가 해당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강릉단오제기금을 지불하여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니오'라고 응답했을 경우 해당금액 미만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응답이 '예'와 '아니오'간의 효용수준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강릉단오제의 전통축제 원형을 지키고, 체계적인 육성과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기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지불 거절에 비하여 효용수준이 높거나 같은 수준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_1(1, M-B;\ C) + \xi_1 \geq v_0(0, M;\ C) + \xi_0 \qquad \text{(식 3-1)}$$

여기서 M은 관광자의 소득, B는 강릉단오제기금 제시금액, C는 방문자의 개인특성 벡터이다. 이 경우 방문자의 개별 지불확률은 다음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Y) = F\eta(\Delta v) \qquad \text{(식 3-2)}$$

여기서 Δv는 간접효용함수의 차이로 다음과 같다.

$$\Delta v = v_1(1, M-B;\ C) - v_0(0, M;\ C) \qquad \text{(식 3-3)}$$

이 때, $F\eta(\Delta v)$는 WTP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수식은 전술한 (식 2-5), (식 2-6)에 나타나 있다.

방문자 개별 지불확률은 제시금액에 대하여 종속변수가 '예(1)' 또는 '아니오(0)'로 응답되므로 이분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Pr(Y)$는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따르게 되며, 간접효용의 차이는 로짓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Pr(Y) = (1 + e^{-\Delta v})^{-1} \qquad \text{(식 3-4)}$$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 거주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514개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자 48.4%, 여자 51.6%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응답자 구성은 20대 이하 34.2%, 30대 28.4%, 40대 22.2%, 50대 9.9% 60대 이상 5.3%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여부는 기혼 60.9%, 미혼 38.7%, 기타 0.4% 등이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1%, 중학교 4.5%, 고등학교 28.0%, 대재 이상 64.4%로 나타났다. 직업구성은 회사원 18.7%, 공무원 9.5%, 자영업 14.6%, 농림어업 3.5%, 전문기술직 10.1%, 학생 20.8%, 주부 16.0%, 무직 3.3%, 기타 3.5%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구성은 강릉 43.6%, 강릉 외 강원도 33.3%, 수도권 14.8%, 기타 지역 8.4% 등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남·여 비율이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2006년 강릉단오제 개최기간이 임시공휴일 1일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평일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일반적인 경우와 상이한데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중 20대 이하가 34.2%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직업별 구성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20.8%)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 구성에서 대재 이상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의

특성상 면접대응이 용이한 측면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구성에서는 회사원, 자영업, 전문기술직, 학생, 주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별 구성은 강릉, 강원도가 약 77%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릉단오제가 개최된 시기가 임시휴일 1일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평일인 관계로 발생된 특성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강릉지역의 주요 관광객 배출지역인 수도권은 약 15%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없는 기간에 강릉단오제가 개최되어, 이러한 특성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인구통계적 특성

(N=514)

구분	항목	빈도(명)	구성비(%)	구분	항목	빈도(명)	구성비(%)
성 별	남자	249	48.4	직 업	회사원	96	18.7
	여자	265	51.6		공무원	49	9.5
연 령	20대 이하	176	34.2		자영업	75	14.6
	30대	146	28.4		농림어업	18	3.5
	40대	114	22.2		전문기술직	52	10.1
	50대	51	9.9		학생	107	20.8
	60대 이상	27	5.3		주부	82	16.0
결 혼	기혼	313	60.9		무직	17	3.3
	미혼	199	38.7		기타	18	3.5
	기타	2	.4	거주지	강릉	224	43.6
학 력	초졸 이하	16	3.1		강원도	171	33.3
	중학교	23	4.5		수도권	76	14.8
	고등학교	144	28.0		기타지역	43	8.4
	대재 이상	331	64.4		합계	514	100.0

2. WTP 결정요인: 모형 추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UNESCO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를 대상재화로 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하여 지불유도방식은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파라미터를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선형로짓모형으로 프로빗모형에 비하여 추정이 용이하고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유용한 점이 있다(이희찬, 2003). 본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는 Bid(제시금액), Rep(응답), Sex(성별), Age(나이), Marital(결혼 여부), Edu(교육 년도), Job(직업 유무), Income(수입), Resident(거주지), rTime(소요 시간), fVisit(방문 횟수), vTrans(교통 수단), vDay(관람 일수), tAccom(가족동반 등 동반유형), nAccom(동반 인원), tInfo(TV/라디오 등 정보취득 유형) 등으로 설정되었다.

<표 3> 모형추정 결과

변수명	B	S.E.	Wald	유의확률
Bid	.000	.000	68.641	.000
Sex	-.104	.238	.189	.664
Age	.047	.015	9.737	.002
Marital	-.737	.394	3.492	.062
Edu	.116	.043	7.335	.007
Job	-.267	.337	.627	.429
Income	.000	.000	.605	.437
Resident	.355	.334	1.130	.288
rTime	.000	.002	.070	.792
fVisit	-.020	.018	1.252	.263
vDay	.064	.079	.668	.414
vTrans	-.359	.249	2.081	.149
tAccom	.299	.294	1.036	.309
nAccom	-.001	.004	.161	.688
tInfo	.270	.231	1.372	.242
Constant	-2.359	.887	7.070	.008

<표 4> 모형의 적합성 검증

모형 적합성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모형 요약			
	χ^2	df	p값	$-2Log$우도	Cox & Snell R^2		NagelkerkeR^2
	142.290	165	.000	490.351	.242		.342
	Hosmer와 Lemeshow검정			분류표			
	χ^2	df	p값		예측		정확%
	14.436	8	0.071	관측	315	42	88.2
					73	84	53.5
							77.6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은 Hosmer와 Lemeshow검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x^2=14.436, df=8, p=0.071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포함되기 전후 모형의 차이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결과는 x^2 =142.290, df=165, p=0.000으로 나타나 상수항으로 구성된 모형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2Log$우도는 490.351로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 $-2LL$값과 비교할 때,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을 진단하는 Cox & Snell R^2= .242, Nagelkerke R^2= .342로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측값과 관측값간의 차이를 비교한 분류표는 확인결과, 강릉단오제기금 지불을 위한 제시금액(WTP)에 대하여 거절(아니오) 88.24%, 지불(예) 53.5%로 평균 77.6%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모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이상과 같은 모형 적합성 근거에 기준하여 통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을 통하여 본 독립변수의 지불의사에 대한 영향력은 제시금액, 연령, 결혼 여부, 교육 년도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0$). 이것은 제시금액, 연령, 결혼, 교육년도가 높을수록 정의 방향으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파라미터 부호와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로 설정한 거주지에 따라 지불의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분석결과 거주지별로 지불의사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일 대상으로 분석한 이중 개방형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허중욱(2007)의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간의 차이에다 정보를 제공하여 지불의사를 이중으로 질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에서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지불유도방식을 확장하여 유사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재화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은 단일 양분선탱형 질문방식으로 제시한 10개의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결과(예 또는 아니오)에 기준하여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TP는 $Mean\,WTP$와 $Truncated\,WTP$이다. 선형로짓모형으로부터 도출한 모수를 다음 식에 적용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m^{+} = \int_{0}^{B^{\max}} Pr(Y)\,dB \quad \text{(식 4-1)}$$

SB-DC CVM(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강릉단오제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Mean\ WTP = 5,505$원, $Truncated\ WTP = 5,67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한 1인당 $WTP = 5,592$원이다. 이 중 $Truncated\ WTP$ 산출을 위하여 사용한 $B^{\max} = 50,000$원이다. $Truncated\ WTP$산출시 $B^{\max}$값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WTP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WTP 추정시 절단 상한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 무한대 값에서 적분하는 값에 비하여 $Mean\ \ WTP$값 등과 비교 가능한 평균값을 보인다(Hanemann & Kanninen, 1998). 이와 같은 WTP 추정값에 근거하여 1인당 WTP를 전체 방문자수로 환산한 연간 총WTP를 산출할 수 있다. CVM을 이용하여 강릉단오제기금을 지불수단으로 추정한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가치 중 보전가치 및 개선가치는 1회당 년간 최소 약 34억원에서 최대 약 96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5일간에 개최되는 일시적 경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는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에 의하여 추정된 결과값이다. 따라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를 보다 구체

적으로 설득할 경우 보다 높은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표 5> SB-DC CVM을 이용한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

구분	$Mean\ \ WTP$	$Truncated\ \ WTP$	평균값
1인당 최소 WTP	5,505	5,678	5,592
연간 최소 WTP	3,351,322,890	3,404,286,576	3,377,804,733
연간 최대 WTP	9,523,650,000	9,674,160,000	9,598,905,000

주 1: 연간 최소 총 WTP = 1인당 WTP × 608,778명 기준임.
주 2: 연간 최대 총 WTP = 1인당 WTP × 1,730,000명 기준임.

Ⅴ. 결론

본 연구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강릉단오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최초 지역주민에 의한 경제적 가치가 보다 높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나 선형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강릉단오제에 대한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자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중 단일 양분선택형 가상적 가치추정방법(SB-DC CVM)을 이용하여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5일간의 축제개최효과가 34억-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방문자의 지불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적인 강릉단오제에 대한 가치에 비하여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같은 경제적 가치추정이 필요한 것은 강릉단오제와 같은 무형의 문화재가 입장료나 기금을 모금하지 않은 비시장재화로서 문화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공익적 특성이 강하여 부단히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 및 산업연관효과, 새로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선도력,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효과, 본원적인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이론적 가치평가 보다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가치의 고려를 종합화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권오상(2007). 환경경제학. 박영사.
김영·이상영·신용광·김은자(2004). CVM을 이용한 안동민속축제의 가치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31(3): 444-461.
김학용·박호표(2006). 문화관광자원의 가치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0(1): 105-120.

브드리야르, J.(2004). 시뮬라시옹(하태환 역). 민음사.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Editions Galilee, 1981].

이희찬(2003). 문화예술제의 가치평가: 조건부 시장가치평가법의 적용. 관광학연구, 26(4); 129-143.

한범수․김사헌(1997). 관광자원 가치평가방법의 방법론적 우열에 관한 연구: TCM과 CVM의 비교. 관광학연구, 20(2): 115-133.

한상현(2007).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가치평가. 관광학연구, 31(1); 443-464.

허중욱(2007).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보편의: 2006년 강릉단오제. 관광학연구, 31(2): 105-125.

Berrens, Roberts, Olvar Bergland and Richard M. Adams(1993). Valuation Issues in an Urban Recreational Fishery: Spring Chinook Salmon in Portland, Oreg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1): 70-83.

Boorstin, D.(1964).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Harper.

Dutta, M., Benerjee, S. & Husain, Z.(2007). Untapped demand for heritage: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of Prinsep Ghat, Calcutta. Tourism Management, 28(1): 83-95.

Freeman Ⅲ, A. Myrick(2003).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values. RFF Press: Washington DC..

Kim, S. S., Wong, K.K.F. & Cho, M.(2007). Assessing the economic value of a world heritage site and willingness-to-pay determinants: A case of Changdeok Palace

Lee, C. K., & Han, S. Y.(2002). Estimating the use and preservation values of National Parks' tourism resources using a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urism Management, 7, 1-10.

MacCannell, D.(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acmillan.

NOAA(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Federal Register: 4602-4614.

Ooi, C. S.(2002). Cultural Tourism and Tourism Culture. Copenhagen Business School Press.

Richer, Jerrell Ross and Neal A. Christensen(1999). Appropriate Fees for Wilderness Day Use: Pricing Decisions for Recreation on Public Lan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3): 269-280.

Ritzer, G.(1999). Enchanting a Disenchanted World: Revolutionizing the Means of Consumption. Pine Forge Press.

Ruijgrok, E.C.M.(2006). The three economic values of cultural heritage: a case study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7(3): 206-213.

Tourism Management, 28(1): 317-322.

Urry, J.(2002).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Sage.